

2023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 원로 예술활동 지원-공연 】 심의평

2023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원로 예술활동 지원> 공연예술 분야에는 총 접수건수 22건에 대해 연극, 무용, 음악, 공연기획 분야 총 4인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연극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다. 경기도 내 원로 연극인들의 활동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끌어낼 기획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내 기획자 또는 프로듀서와의 연결을 통해 원로 연극인들의 활동 시너지를 낼 만한 창작 활동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또한, 원로 연극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곡 개발이 필요하며, 실버 세대의 관객과 호응하는 좀 더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음악 분야 심의를 통해서는 경기도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의가 식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국악 분야에서의 신청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심의 결과에서도 원로 국악인들의 사업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원로 국악인들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서양음악을 전공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원로 예술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무용 분야의 경우, 전체 지원작 수가 단 2건에 불과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한국무용 단체라는 점에서 타 무용 장르에서 활동해온 원로 예술인들의 지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모요강에 따라 신청자, 사업계획, 작품내용, 기대가치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의 심사기준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업계획과 작품내용은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 경기도에서 신작공연을 발표할 예정인 지역 기반의 원로 예술 단체의 활동 가운데 보다 유의미한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후 진행되는 사업에는 더 많은 원로 무용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연 기획적 측면에서는 이 공연 작품이 한 예술가에 대한 기록과 정리의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공연의 의미를 넘어 한 예술가의 기록이 지역 예술 전반의 예술적 자료로 축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심의위원이 한평생을 예술 창작에 매진해 온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부담감으로 가급적 신중하게 심사는 했지만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타는 예술혼으로 창작에 전념해 온 모든 원로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나, 예산의 한계로 지원 선정작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23.5.9.

심의위원	김필국 (유니마코리아 이사)
	이석렬 (음악평론가)
	엄혜원 (드라마터그)
	손옥주 (공연학자)